

‘밋밋함과 진부함’ 광주·부산비엔날레



홍경한의
시시일기

7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광주비엔날레는 비엔날레 역사상 가장 많은 기획자들이 참여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에 다 전시 총괄 큐레이터까지 겸한 김선정씨를 포함해 무려 11명이 전시를 꾸렸다. 기획자가 많아서인지 여타 비엔날레에 비해 규모는 큰 편이다. 그렇다고 카셀도 큐멘타처럼 서너 일가량 돌아볼 정도는 아니다.

전시는 놀라움을 선사한다. 여타 비엔날레에 비해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네 다섯 배에 달하는 예산과 인적자원으로 어떻게 그토록 멋진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는지 의아해서 그렇다. 일례로 주제전 구성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 상투적이다. 주제의식보다는 구조가 먼저 드러나고, 형식 또한 들쑥날쑥 작은 기획전들을 각각의 공간 아래 몰아넣은 모양새를 띤다. 흥미롭게도 각각의 섹션은 서로 유연하게 통합되거나 못한 채 각자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다.

내용은 더욱 평범하다. 도시, 환경, 난민, 광주의 역사 등을 다뤘지만 비엔날레 특유의 급진성은 떨어진다. 획기적인 사회·문화적 담론 또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비엔날레 자체만 해도 광주만의 특성은 물론 한국 대표 비엔날勒로써의 문화예술적 나침반 역할에 힘이 부친다. 부자 비엔날勒답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작품을 쏟아 놓았으나 속보단 포장을 잘했다는 인상이 강하다.

기대했던 부산비엔날레도 실망스럽긴 매한가지다. 흔한 기획전을 확대한 전시라는 여운을 심어준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규모를 축소했지만, 크기로 승부해온 여타 비엔날勒들에 비해 발품을 덜 팔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나아가지 못한다. 규모의 축소가 곧 주제의 명징함을 뒷받침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규모 축소=집중도’라는 등식은 특별할 것 없는 기획력과 준비부족을 감추기 위해 급조된 알리바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애석하게도 부산비엔날레는 전 세계의 영토적 민족적 분열과 심리적 분리에다가서기도 전에 ‘관객의 분리’부터 생성한다. 유독 넘치게 등장하는 남북분단 관련 이슈 중 일부는 신파적, 단선적 사고에서 전개되고, 어설픈 낭만주의적인 작품들은 되레 현실의 엄혹함을 은폐한다.

전반적으로 진부한 탓에 예배 그루빙 거의 ‘군중’처럼 뜻밖의 인내심을 요하나, 다행히 눈에 띠는 작품이 없는 건 아니다. 그중 하나가 헌리케 나우만의 작품이다. 그의 작품은 통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우회 없이 드러내는데, 영토와 정치적 통합이 심리적 분할을 극복하지는 못했음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한국 상황에 참조할 만하다.

또 하나의 작품은 이스라엘 태생의 작가 아엘 바르타나의 ‘인페르노’다. 상파울로 솔로몬신전을 모티프로 한 이 퍽션은 역사성과 종교성, 민족성에 관한 분리와 균열을 웅장함과 비장함으로 보여준다. 이밖에도 아프리카가 처한 현실과 가상, 과거·현재·미래를 버무려 SF적 문화미학을 엿보게 하는 와누리 카히우의 ‘불모의 땅’, 시민참여형 작품인 오귀스탱 모르의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눈길을 끈다.

한편 개막 전부터 화제가 된 광주비엔날레의 북한미술은 그야말로 ‘선전’의 장이다. 22점의 북한 그림은 조형적으로 깨나 리얼리티하며, 모처럼 회화의 ‘손맛’까지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삶의 리얼리티를 읽을 수는 없다. 고난 속에서도 웃음기 가득한 인물들은 체제 속 유토피아를 가리키고, 연극 같은 동작은 인위적 기호처럼 다가온다.

이와 관련해 기획자로 참여한 문범강씨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면 북한 미술의 예술성이 보인다”고 했는데, 애써 관람자의 가치판단을 제어하려 노력할 필요 없다. 선전화는 단지 선전화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술평론가·칼럼니스트



NH농협금융, 농촌 다문화가정과 한마당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4일 김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과 임직원 봉사단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북 정읍농협 대강당에서 정읍시 관내 다문화가족 100여명을 초청해 전통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의 다문화가정이 참석했으며, 추석 음식인 송편을 빚고, 강강술래,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도 함께 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NH농협금융



롯데자산개발 “색칠하며 사랑 나눠요”

롯데자산개발이 명화 컬러링 봉사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 사랑에 적극 나섰다. 롯데자산개발 직원들은 롯데피트인 동대문 교육장에서 명화 밀그림을 색칠하는 명화 컬러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완성된 작품은 중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중구 소외계층과 사회복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롯데자산개발



롯데홈쇼핑, 중소·개별PP제작 지원공모전 시상식

롯데홈쇼핑은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 3회 중소·개별PP 제작 지원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전 결과, 우수작으로 선정된 생활체육TV를 비롯한 총 7개 중소·개별 PP(program provider/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또는 프로그램 공급자라고 불림)에게 제작 지원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이완신 대표는 한국언론학회로부터 방송제작 산업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롯데홈쇼핑



SPC그룹, 청소년 대상 ‘내꿈은 파티시에 대회’

SPC그룹은 전국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와 청소년이 제과제빵 실력을 뽐내는 ‘제 7회 내 꿈은 파티시에 대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5일 서울 대방동 SPC미래창조원에서 개최됐으며, 아동부와 청소년부 각각 10개 팀이 참여해 ‘어른들은 몰라요, 10대가 좋아하는 베이커리’라는 주제로 실력을 겨뤘다.

/SPC그룹

오렌지라이프는 KB금융의 계륵?



기자 수첩

김희주
(파이낸스&마켓부)

“계륵이라 하시오, 계륵!”

서기 219년 족(蜀)나라 유비와 위(魏) 나라 조조가 한중(漢中) 지역을 놓고 전쟁을 벌일 때 일이다. 길어진 싸움에 식량은 떨어져 갔다. 조조의 군대는 유비의 군대에 점점 밀려나면서 조조는 진퇴를 고민했다. 이때 장수 하후돈이 들어와 야간 암호를 물었다. 조조는 무심코 ‘계륵’이라고 내뱉었다. 주부(主簿)로 있던 양수(楊修)는 조조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짐을 꾸렸다. 이튿날 조조도 철수 명령을 내렸다.

여기서 비롯된 고사성어가 ‘계륵’이

다. 닭의 갈비뼈는 고기가 별로 없어,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사 속 한중은 계륵, 그 이상이었다. 한중은 북쪽 진출의 거점이 되고 서쪽 땅을 지킬 수 있는 요충지였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는 계륵이었을까. 윤 회장은 지난해 11월 연임이 확정된 뒤 “생명보험 부문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KB금융 그룹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지 채 1년도 안 돼 리딩뱅크 자리를 신임금을 빼앗길 위기다.

이번 신한금융의 인수가격이 지분 59.15%에 2조3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KB금융 입장에서는 배 아플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지난 2012년 KB금융이 옛 ING생명을 인수하려 했을 때 가격은 지분

100%에 2조2000억원이었다.

KB금융의 마지막 퍼즐은 KB생명이다. KB생명은 KB금융의 비은행 부문 계열사 중 약체로 꼽힌다. KB생명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47.6% 급감했다. 그룹 내 자산총액은 KB캐피탈에도 밀렸다. KB생명의 올 상반기 자산총액은 9조1212억원으로 KB캐피탈 9조2105억원보다 890억원 적었다. 생보업계에서도 KB생명은 업계 17위로 저조하다.

KB생명은 올 초 허정수 사장을 새로운 CEO로 선임하며 분위기 쇄신을 노렸으나 아직까지 그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룹 강화를 위해서는 KB생명을 키워야 한다. KB금융이 향후 생보사 인수·합병(M&A) 시장에서 큰손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hj89@metroseoul.co.kr

인사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 공간정보제도과장 손종영 △ 국가공간정보센터장 성윤모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장 정해익 △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 김영욱 △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박세필 △ 주거복지정책과장 김석기 △ 해외건설지원과장 이명섭

◆보건복지부 ◇ 과장급 △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장 변효순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 서명용 △ 국립나주병원 서무과장 이창섭

◆해양수산부 ◇ 실장급 직위전보 △ 기획조정실장 박준영 △ 해양정책실장 최준욱 △ 수산정책실장 최완현 ◇ 국장급 전보 △ 대변인 황종우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박경철 ◇ 과장급 전보 △ 어업정책과장 최용석 △ 어촌양식정책

과장 윤분도 △ 미래전략팀장 노재옥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황준성

◆병무청 ◇ 고위공무원 임용 △ 강원지방병무청장 정영창

부음

▲이종현씨 별세, 이연구(전 충북도의회 의장)씨 부친상 = 16일 오전 3시, 충주 탄금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043-842-4444.
▲이옥순씨 별세, 조한수(충남 천안시 문화도서관사업소장)씨 모친상 = 16일 0시15분,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30분. 010-3419-1922.
▲최홍규씨 별세, 최종일(국방부 대변인실 브리핑담당·해군 소령)씨 부친상 = 16일 새벽, 강릉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10-5081-6996.

▲이경옥씨 별세, 이중현(캐나다 거주)·이중현(삼일회계법인 파트너)·이지영(호주 거주)씨 부친상 = 15일 오전 8시4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30분. 02-3410-315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 책임	이 장 규
인쇄 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 404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 50111 2017년 3월 9일 제 0146호

염재호 고려대 총장

와세다大 명예법학박사 학위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이 15일 일본 와세다대학 학부 졸업식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는 와세다대학이 염 총장의 한 국 행정·정치 분야 공헌과 양교의 학술교류 추진 등 국제사회에서 교육 문화 발전에 기여해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왼쪽)과 가마타 가오루 와세다대학 총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려대학교